

마음, 과연 무엇인가 - 불교의 심리학적 측면

베야닷시 스님 (스리랑카)

(2) 마음이 존재의 핵심

마음이 모든것 지배하며 마음이 모든것 창조한다

예를 들어 마음을 챙기는 방법을 설하신 <연처경(念處經)>이나, 산만한 생각을 제거하는 방법을 설하신 <생각수기경>, 그 외에도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주요 경들을 보면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심리학은 불교와 깊은 동반자

불교는 다른 어떤 종교보다도 심리학적 성격이 짙습니다. 마음의 복잡한 작용들이 다른 어떤 종교에서보다 불교에서 더욱 자세히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주목해야 할 일이며, 따라서 심리학은 다른 어떤 종교보다도 불교와 깊은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물을 것입니다. '그럼 불교는 현대 심리학과 연관이 있느냐'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불교는 분석적(分析的)인 면보다는 치유적(治癒的)인 면에 더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불교는 우리가 지성을 넘어서서 삶 그 자체의 실제 경험에 도달하도록 도와줍니다. 부처님은 명상을 통하여, 누구나 마음 속 깊이에 공통되게 앓고 있는 질병들을 발견하셨던 것입니다. 마음이 벌이는 일들을 너무나 확연하게 통찰하고 있었기에 부처님은 자연히 가장 훌륭한 심리학자이자 과학자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인간의 정신생활에 관한 이 진리들을 찾아낸 방법은 현대 심리학에서 실험주의자들이 쓰는 방법과는 분명 다르지만, 부처님께서 발견해 내신 것은 지금도 여전히 진실이고, 실험주의자들의 연구에 의해 점점 더 확증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에 관한 한 불교에서 하는 탐구는 과학자들의 그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마음과 물질(名色)의 성질에 관한 부처님의 설명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인간의 해탈, 즉 속박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의 내면생활이 인간 행동의 발생 과정에서 차지하는 결정적 역할을 주목하셨기 때문에 마음과 정신적 현상들에 그토록 역점을 두셨던 것입니다. 유신론(有神論)적인 종교의 근본을 이루는 것은 신입니다. 비유신론(非有神論)적인 불교에서는 마음이 근본입니다.

이 세상은 무엇이 이끌어 갑니까 모든 힘 중에서도 마음의 힘이 가장 강력합니다. 그 힘은 다른 어떤 힘도 능가합니다. 마음 그 자체가 힘 바로 그것입니다. 이 힘이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려 든다면 그것은 발사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의 힘을 부처님처럼 철저하게 이해한 사람은 일찍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불교는 물질세계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질계가 정신생활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을 인정하면서도 사람 마음의 크나큰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번은 어떤 비구니가 부처님께 여쭙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모든것 지배하며, 마음이 모든것 창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의 하느님 말씀은 ‘사실상 모든 유신론적 종교의 신들의 말씀이 그러하듯이-신, 하늘, 즉 구원(久遠)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와는 달리 부처님은 해탈 체계에서 마음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사람들을 분별(分別)과 탐구의 길로 나아가도록, 마음의 내적인 힘과 자질을 향상시키는 실질적 과업에 몰두하도록 촉구하여주시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 스스로 필요한 노력을 쏟아 자신의 해탈을 성취하도록 하여라. 여대들은 다만 그 길을 일러 줄 뿐이니라.”(법구경)

마음의 자유라는 이상(理想)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려면 마음의 중요성부터 음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 올바른 이해가 없으면 마음의 자유를 신장, 수호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왜 그다지도 절실한지 그 이유를 충분히 헤아려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무엇이 이끌어 갑니까 모든 힘 중에서도 마음의 힘이 가장 강력합니다. 그 힘은 다른 어떤 힘도 능가합니다. 마음 그 자체가 힘 바로 그것입니다. 이 힘이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려 든다면 그것은 발사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의 힘을 부처님처럼 철저하게 이해한 사람은 일찍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불교는 물질세계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질계가 정신생활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을 인정하면서도 사람 마음의 크나큰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번은 어떤 비구니가 부처님께 여쭙었습니다.

“존자시여! 이 세상은 무엇에 의해 인도(引導)되고 있습니까? 무엇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으며, 모든 것을 지배하는 한 가지 법(法)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기독교 바이블은 “태초에 신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로 시작되는데, 불교의 바이블이라 할 수 있는 <법구경(法句經)>은 첫 구절이 “마음이 모든 것에 앞선다. 마음이 모든 것을 지배하며, 마음이 모든 것을 창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의 하느님 말씀은 ‘사실상 모든 유신론적 종교의 신들의 말씀이 그러하듯이-신, 하늘, 즉 구원(久遠)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와는 달리 부처님은 해탈 체계에서 마음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사람들을 분별(分別)과 탐구의 길로 나아가도록, 마음의 내적인 힘과 자질을 향상시키는 실질적 과업에 몰두하도록 촉구하여주시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부처님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비구여! 세상은 마음(생각)에 의해 인도되고, 마음이 세상을 이끌고 있으며, 모든 것이 마음이란 한 가지 법의 지배하에 있느니라.”(중지부 Ⅱ권)

마음 또는 식(識)이 우리 존재의 핵심이라고 보는 것이 불교의 관점입니다. 고통과 즐거움, 슬픔과 행복, 선과 악, 삶과 죽음 같은 모든 심리적 경험들을 어떤 외부적 작인(作因)의 탓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 자신의 생각과 그 생각이 초래한 행동의 결과인 것입니다.

불자답게 사는 삶은 자신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깨닫기 하기 위해 분투, 노력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그 일생은 자기완성에 이르는, 자기 발전과 자기 정화의 길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 결과에 역점을 두어야 합니다. 단순한 철학적 사변이나 논리적인 추상, 심지어 심사숙고마저도 실천과 결부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불교의 도덕적 특질이나 불교심리학은 저 영원한 진

리인 고(苦), 즉 일체 유정물이나 일체 경험적 실존들의 불만족성에 입각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로지 한 가지를 나는 가르친다. 고와 고의 종식을”(중부)22경 1권)

이 명백한 말씀을 이해하면 불교를 이해한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불교의 모든 가르침은 바로 이 하나의 원칙을 적용한 데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고(苦)와 고의 소멸에 이르는 길 부처의 깨달음이란 다른 아닌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들(四聖諦)’ 즉 고통과, 고통이 일어나는 원인과, 고통의 소멸과, 고통의 소멸에 이르는 길(苦·集·滅·道)인 것입니다. 여타의 가르침들은 이 네 가지 진리를 논리적으로 전개한 것이거나 좀 더 상세히 설명한 것일 뿐입니다.

“이것이 모든 시대 부처들이 한결같이 가르치신 부처 특유의 가르침이니라”(울장) ‘대품’ 1 권, Ⅱ 권. <장부> 1 권. <중부>

려 할 것입니다.

“이 배움은 정신적 평화와 고요함,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얻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인가?”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식(識)과 상(想)을 더붙은 이 한길 몸둥이(色) 속에 세계와 세계의 소멸과 세계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 있음을 나는 천명하노라.”(상응부) 1 권)

여기서 ‘세계’란 말은 dukka(苦)를 의미합니다.

그분의 가르침에 따르면 고통은 오온(五蘊)으로부터, 즉 이 한길 몸과 마음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오온과 ‘고’는 하나이지 별개의 두 가지가 아닙니다.

“고”란 무엇인가?

부처님은 자문자답하십니다.

“오취온(五取蘊, 존재를 구성하는 5가지 집착의 무더기)이 바로 ‘고’라고 해야 할 것이니라.”(상응부) Ⅲ 권)



리인 고(苦), 즉 일체 유정물이나 일체 경험적 실존들의 불만족성에 입각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로지 한 가지를 나는 가르친다. 고와 고의 종식을”(중부)22경 1 권)

이 명백한 말씀을 이해하면 불교를 이해한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불교의 모든 가르침은 바로 이 하나의 원칙을 적용한 데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고(苦)와 고의 소멸에 이르는 길 부처의 깨달음이란 다른 아닌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들(四聖諦)’ 즉 고통과, 고통이 일어나는 원인과, 고통의 소멸과, 고통의 소멸에 이르는 길(苦·集·滅·道)인 것입니다. 여타의 가르침들은 이 네 가지 진리를 논리적으로 전개한 것이거나 좀 더 상세히 설명한 것일 뿐입니다.

“이것이 모든 시대 부처들이 한결같이 가르치신 부처 특유의 가르침이니라”(울장) ‘대품’ 1 권, Ⅱ 권. <장부> 1 권. <중부>

려 할 것입니다.

“이 배움은 정신적 평화와 고요함,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얻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인가?”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식(識)과 상(想)을 더붙은 이 한길 몸둥이(色) 속에 세계와 세계의 소멸과 세계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 있음을 나는 천명하노라.”(상응부) 1 권)

여기서 ‘세계’란 말은 dukka(苦)를 의미합니다.

그분의 가르침에 따르면 고통은 오온(五蘊)으로부터, 즉 이 한길 몸과 마음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오온과 ‘고’는 하나이지 별개의 두 가지가 아닙니다.

“고”란 무엇인가?

부처님은 자문자답하십니다.

“오취온(五取蘊, 존재를 구성하는 5가지 집착의 무더기)이 바로 ‘고’라고 해야 할 것이니라.”(상응부) Ⅲ 권)

<h2>불자 정보</h2> <p>879호 </p> <p>TEL 02) 2004-8215(直) 732-1522 FAX 02) 737-0696</p>	<h3>사찰 안내</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치: 부산 지하철에서 2분거리 자연부지 건물 허가됨 300평 하천부지 약 300평 법당, 요사채 70평 가액: 답사 후 결정 <p>011-574-3303</p>	<h3>포교원 안내</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구 북구 읍내동 2층 50평 최고시설 법당1, 방3, 공양간 1, 창고방1, 화장실1 보증금 1천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p>010-9199-7897</p>	<h3>포교원 안내</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농수산물 시장 건너편 총평수 50평 3층건물의 3층 시설완비 몸만 오시면 됨 보증금 1500만원에 월 40만원 <p>010-9278-9049</p>	<h3>암자 안내</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치: 익산시 5분거리 종교부지 300평, 국유지600평 법당 25평, 요사31평, 산신각 문화재계약사석불 가액: 1억 8천만원 <p>011-677-8525</p>
<h3>암자 안내</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치: 경북 봉화군 상운면 문촌리 148번지 전 3,000평 내에서 대지 210평, 법당 30평 요사채 24평, 창고 10평 가액: 1억 9천만원 (상담 후 결정) <p>010-9004-7212</p>	<h3>도심포교원 안내</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치: 경남 창원 도계동 3층 대형 상가건물 내 2층 45평, 큰법당에 시설 완비 가액: 시설비 포함 1억 8천만원 <p>010-4668-6550</p>	<h3>포교원(금)안내</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치: 서울 강동구 명일동 방주빌딩 2층 법당: 삼존불, 후불, 칠성, 신중 방3개, 주방, 해우소1개 평수: 45평 보증금 2천5백만원, 월100만원 가액절충 현재 법회중 <p>010-5362-3370</p>	<h3>포교원 안내</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치: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사용평수 50평 삼존불, 지장보살, 인등, 소불 주차가능 몸만 오시면 즉시법회가능 가액: 2500만원 상담후 절충 <p>051)701-7230</p>	<h3>포교원 안내</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치: 경기도 의정부 중앙로 의정부역 지하철 10분거리 경전철 5분거리 2층 건물의 2층, 총평수 25평 육상방 사용가능, 집기일체완비 몸만 오시면 됨 가액: 1억 8천만원 (은행융자가능) <p>031) 846-1028 010-3780-5856</p>
<h3>사찰(금)안내</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치: 포항시 북구 양덕동 법당 28평, 단청완료 산신각 2평 단청완료 요사채 약 80평, (방6개) 심야전기 창고3개, 주차 50대이상 가액: 8억(조정가능) 평수 대지, 개인도로 673평, 답 100평 <p>010-6409-8114</p>	<h3>사찰 안내</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산시 금정구 지하철 10분 이내 거리 1층요사채 화장실 2개, 방4개, 거실, 2층법당 신중개조, 법당, 단청일체 삼존불 은행목불, 원목불단, 108소불 있음 1층 약사불, 포대화상 2층 산신, 용왕, 독성 별도 위치좋고 옆 공원 산세 좋음 스님 건강 관계로 9억 <p>010-2503-0776</p>	<h3>사찰 안내</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치: 영천시 금호읍 원제리 대지 196평 주자창, 뒷밭 175평, 법당 15평 야외 지장보살입상, 요사채방5, 심야보일러 가액: 1억8천5백만원 <p>011-769-7029</p>	<h3>사찰 안내</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치: 충북 청원군 가덕면 병암리 1층 요사채 35평, 2층법당 11평, 산신각 3평, 대지 90평 외부: 5층석탑, 미륵존불, 양쪽 석등, 1자반 약사여래불 주자시설완비 가액: 1억 5천만원 <p>010-4085-1119</p>	<h3>포교원 안내</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치: 인천 제물포 4층 33평 보증금 300만원, 월세 30만원 시설비 약간 <p>070-8910-5161</p>

사찰(금)안내

- 위치: 경북 포항시(서포항 IC 10거리) 2차선 갖길 효초길
- 사찰 전시관 (2층 240평) 대웅전, 용왕, 산신, 지장전, 종각, 대웅공양실, 판매장 총 2,500평
- 경주, 대구, 영천 30분거리
- 일반 계가 불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음.
- 특 징: 눈물 흘리는 약사여래불, 국내최대 관음아기를 안고 계신 목불 (약 250년), 3m 40cm 50여점의 크리스탈 계금불 외 희귀불상 전시 (목불위주 전시) 일사과 외벽 만다라 전시 월간 약 10여개 이상 천도제 (평가격: 30만원)
- 전시관은 크리스탈 전시회 등으로 약 10년간 걸쳐 조성한 주지스님 계금불로서 절대 모방이 불가능하며 참배하시는 분께서는 황홀감에 빠져드는 진귀한 작품.
- 민간방송에서 17회 방영된 바 있음.
- 총 2,500평 중 성취관 내 일체 고풍상 전시시설만 받고, 대웅전, 지장전, 용왕, 산신, 대웅공양실, 종각, 땅 2,500평 무료 제공함.
- 2011년 초파일 참배인원 약 3,000여명
- 가액: 총 전시관 자금만 받고 금 안내
- 인터넷 상에서 포항 성취관 입력하시면 됩니다.

연락처 : 010-4504-0174